

평화를 추구합니다

: MCC의 본질에 대하여

Pursuing Peace : The Essence of Mennonite Central Committee

에스더 엠티센 지음



Mennonite
Central
Committee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평화를 추구하리라

: MCC의 본질에 대하여

Pursuing Peace : The Essence of Mennonite Central Committee

에스더 애타이센 지음



Pursuing Peace

The Essence of Mennonite Central Committee

By Esther Epp-Tiessen

Revised Edition,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Mennonite Central Committee

Illustrations by Roberta Fast; design by Dana Hepting

©2009 Mennonite Central Committee Canada

134 Plaza Drive

Winnipeg, Manitoba

R3T, 5K9

(204)261-6381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 동북아시아(Mennonite Central Committee Northeast Asia)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일러두기 : 성서 본문은 새번역에서 인용하였습니다.

ISBN 979-11-969934-0-5 03230

머리말	9
<hr/>	
1. MCC, 평화를 추구하다	10
2. 성경적 기초	13
3. 평화교회로서의 초대교회	16
4. 아나뱃티스트 운동	19
5.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신학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해석	23
6. 이어지는 평화의 증언	30
7. 우리가 헌신하는 평화 만들기의 본질	34
8. 자주 묻는 질문들	37
<hr/>	
맺음말	43
참고 문헌	44
부록: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 평화 성명서	45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시편 3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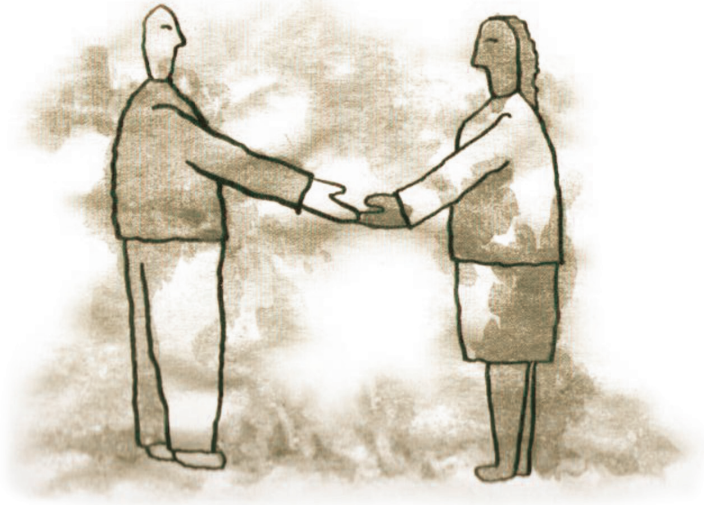
머리말

평화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자 우리가 부름 받은 사역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은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찾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매일 참여하라고 초청 받습니다. 우리는 치유하고 치유 받고, 축복하고 축복 받으며, 격려하고 격려 받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라고 초청 받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폭력과 절망 가운데서도 매일 평화와 소망을 구현하라고 초청 받습니다. 인류의 삶에 소망과 믿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는 믿음과 사랑, 창의성으로 평화를 추구하라고 초청 받습니다.

이 책자는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이하 MCC)가 추구하는 평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평화 그리고 평화 만들기(peace making)¹⁾는 MCC의 정체성과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MCC는 왜 이토록 평화에 대해 열정적일까? MCC가 이해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MCC는 평화의 길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가?' 이 책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인 동시에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북돋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과 교감하며, MCC와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1) 이 책자에서 peace making은 '평화 만들기'로 peacemaker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번역자 주]



1. MCC, 평화를 추구하라

다음 여섯 가지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북아프리카의 수단은 지난 20년 동안 북부 지역의 아랍계 무슬림이 아프리카계 그리스도인과 정령 숭배자가 대다수인 남부 지역을 향해 일으킨 전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받았습니다. 대략 200만 명이 죽었으며, 400만 명이 국내에서 난민이 되었고, 40만 명이 수단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남부 수단에서, MCC는 고통을 경감시키고 평화를 세우는 신 수단교회협의회(New Sudan Council of Churches, NSCC)를 지원했습니다. NSCC는 식량 구호와 난민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을 도왔습니다. NSCC는 또한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종족 주민들을 함께 모아 평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2 1980년부터 1992년 사이, 인구가 30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인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는 잔혹한 내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약 78,000명이 살해되었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오랜 전쟁은 불신과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지속적인 잔재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MCC는 트라우마 치유,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과 중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 기간 동안 겪은 그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고 과거에 적이었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토론했습니다. MCC는 전쟁이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며 평화의 문화를 세워가는 일을 도왔습니다.

3

1990년대 초반 캐나다 매니토바의 메노나이트 교회 회중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들이 앞으로 나와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를 폭로했고 교회는 이 일에 관련된 개인과 가족들을 어떻게 구속적으로(redemptively) 다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특하면 희생자들을 탕했고, 가해자들에게는 무죄가 선언되었으며, 교회는 양쪽으로 깊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MCC 매니토바는 개인과 회중에게 일어난 학대를 인정하고 이를 치유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제공할 '비폭력을 위한 목소리'(Voices for Nonviolence)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15년 이상 이 단체는 희생자 지원 그룹, 희생자의 지지자를 위한 훈련, 워크숍과 단기 강좌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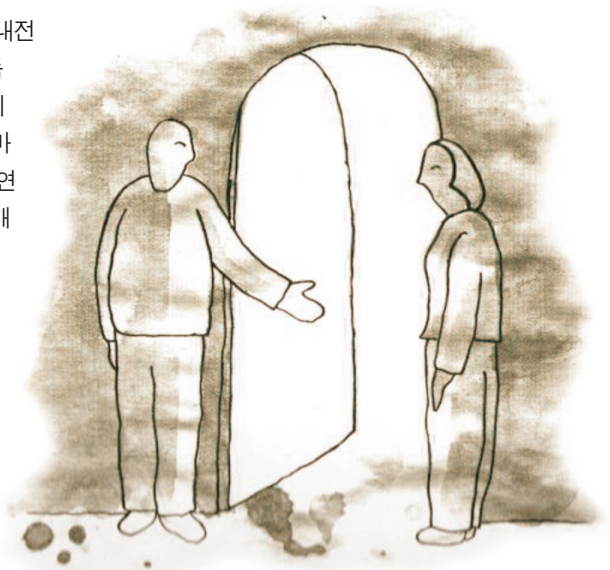
MCC는 구호, 봉사, 개발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북미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 교회들의 기관입니다. MCC는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사랑과 은혜,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와 평화 만들기는 MCC 사역의 모든 부분의 중심입니다.

4

1990년 이란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MCC는 구호와 재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몇 년 뒤 서방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나라로 여겨지는 이란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교육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MCC는 북미 학생들을 이란의 한 신학교에 보냈고, 두 명의 이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교환 프로그램은 일련의 종교 간 대화로 발전하였고 이란과 캐나다에서 특별 대표단이 참여하며 계속되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생산을 이유로 폭격으로 위협할 때, MCC는 미국과 캐나다의 종교 지도자와 이란 대통령의 특별 회담을 여러 번 주선했습니다. MCC는 이런 노력들이 전쟁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5

콜롬비아는 30년 동안의 내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폭력은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지배층과 외국기업들을 배불리는 마약 거래 및 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캐나다의 광산 회사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은 준군사조직을 통해 콜롬비아에서 자신들을 보호합니다. 이 기업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가장 심각한 폭력, 인권침해, 거주민 추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MCC는 캐나다



“폭력의 세상에서 치유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폭력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아주 단순하게도 치유자들은 치유가 필요한 상황으로 부름 받기 때문이다.”
- 루스 크랄
(Ruth Krall)

의 교회들을 격려하여 캐나다 기업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환경 기준에 책임을 갖게 하는 입법 활동에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콜롬비아의 경제 및 정치적 정의를 위한 옹호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MCC는 또한 콜롬비아의 아나바티스트 교회들이 평화의 증언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 1951년부터 1971년까지 20년 동안 총 74명의 메노나이트 봉사자들이 남한에서 MCC를 통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사업, 메노나이트 직업학교(경산), 가족-어린이 지원 프로그램, 전쟁 과부들을 위한 재봉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1971년 남한을 떠났던 MCC는 1995년부터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간 북한에 14만 4천 개의 고기 통조림을 지원했으며 이는 MCC가 전 세계 10개국에 공급한 고기 통조림 총량 67만 899 개의 20%를 차지합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꿈꿨던 것 같고, 북미 간 긴장이 점점 더 심해지던 때에도 깨어진 작은 틈 사이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²⁾



이 모든 이야기는 MCC의 평화 만들기 위한 성경적 비전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며 이 비전을 시행하는 MCC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관계를 세우고,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응답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갈등 해결을 가르치며,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명명하고 그에 대응하며, 불의한 경제 구조와 억압에 대해 말하고, 지역교회를 지원하는 일들은 MCC가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정의와 평화에 대한 관심을 이 세상에서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보기

✓

MCC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호 사업(식량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구호 사업이 MCC의 평화를 위한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 개발 사업은 어떨까요? 보건 사업은 어떨습니까?

✓

여러분이 하는 활동 중 평화에 대한 헌신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원본에는 없었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추가 되었다. [번역자 주]

2. 성경적 기초

평화와 평화 만들기는 MCC의 일과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책자의 43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에 대한 헌신”을 보십시오.) 이 헌신은 성서의 이야기들이 묘사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 죽음과 부활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이기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peacemakers)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평화를 말한 선지자들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는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사 9:6-7).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러 보냄 받았습니다(눅 1:79). 예수가 태어날 때 천사들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라고 선포합니다.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예수

예수는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는데, 그 통치의 특징은 용서와 치유, 평화를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는 영혼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눌러 있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는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의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눅 4:18). 그는 또한 사회에서 추방되었거나 적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 이혼하여 매춘부, 세리, 사마리아인, 로마의 점령군과 같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종종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셨습니다(막 5:34, 눅 7:50).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 마태복음 5:43-47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참으로 가장 복음적인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

- J. 데릴 바일러
(Daryl Byler)

예수가 가르친 평화, 사랑,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길

예수는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눈에는 눈’ 혹은 ‘이에는 이’와 같이 제한적인 보복을 허락하지만,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고난 받는 사랑’(suffering love) 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악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창조적이고 놀라운, 비폭력의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뺨을 한 대 맞았다면 다른 뺨을 돌려대는 뜻밖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짐을 지고 오 리를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십 리를 가야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적과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방식으로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 5:38-48).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심으로써 적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눅 23:34).

고문과 십자가 처형, 죽음을 받아들였으나 생명으로 일어나신 예수

예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점령군의 권력자들은 예수의 주장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기에 예수를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기고, 채찍질하고 때렸으며, 마침내 십자가라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사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수많은 지점에서 예수는 체포에 저항하거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권력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점령군의 압제에 대항하는 무장 혁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힘으로 전복시키려는 혁명적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을 이유가 없는 고난과 폭력적인 죽음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부활은 폭력과 악을 이기는 ‘고난받는 사랑’의 길에 대해 하나님이 정당성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구원과 평화를 성취한 십자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쓰고 있습니다(롬 5:1).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롬 5:10). 이것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평화는 단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렸으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받습니다(엡 2:17-20).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롬 12:18)라고 강령하며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는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격려합니다(살전 5:15).

예수에 대한 헌신은 그의 평화의 길에 헌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이해한 사도들

바울의 편지들에 더해서 다른 신약 묵회서신서 역시 예수의 평화의 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격려합니다(히 12:14). 환란과 박해의 기간 동안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베드로전서는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는 시편 34편의 초창을 인용하고(벧전 3:11),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강령합니다(벧전 3:9).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약 3:18). 이 편지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수십 년 동안 기록된 것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을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보기

- ✓ 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읽어 보십시오. 악에 대해 비폭력으로 대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 지점을 찾아보십시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악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 ✓ 예수가 성전을 정화하신(마 11:15-19) 사건은 때로 예수가 악을 대면했을 때 폭력을 사용하셨음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은 어떻게 악에 대한 비폭력적인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3. 평화교회로서의 초대교회

“...우리는 더 이상 '민
죽을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아도 된다. 또
한 평화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지도자이
신 예수를 위해 '더 이
상 전쟁을 배우지 않아
도' 된다.”

- 알렉산드리아의 오리
게네스

(AD 185-254)

초기 기독교 교회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평화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주교였던 이냐티우스(Ignatius, 35-108년경)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해친 이들에게 복수하면 안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³⁾ 그 대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적들을 응징하기보다 고난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푸스(Polycarp, 69-155)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평화의 길이 삶의 모든 면과 관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 변증가요 순교자였던 유스티누스(Justinus, 100-165)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들의 적을 향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며, 거짓말하거나 누군가를 속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2세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싸우는 검투사 경기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낙태와 영아살해는 그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3세기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시대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적들로 간주되었으며 일정 기간 엄청난 박해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막시밀리아누스 빅토르(Maximilianus Victor)는 로마 군대에 징집되었을 때 스물한 살이었습니다. 그는 입대를 거부하며 “나는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지휘관은 병역을 거부하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막시밀리아누스는 자신의 뜻을 고수했고 다음 날 처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자,



3) 저자는 '고린도의 주교였던 이냐티우스(50-115년경)'라고 쓰고 있지만 초대교부들의 저작에서 이냐티우스는 안티오키아의 주교로 소개된다는 점에서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티우스'로 바로잡는다. 교부들의 이름은 한국교부학연구회의 표기를 따랐다. [번역자 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를 따르게 된다면 제국은 멸망할 것이며 교회를 비난하는 이도 생겨났습니다. 제국을 지킬 군인들이 충분치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에 대한 박해를 끝냈으며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뒤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⁴⁾ 콘스탄티누스 이후 수 세기 동안, 교회는 병역과 전쟁 참여에 대한 초기의 비판적인 입장을 버립니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는 제한된 조건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의 사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한 전쟁론(just war theory)”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일을 거부한다. ... 우리는 형제와 같은 사람을 단지 강 저쪽 혹은 바다의 이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적으로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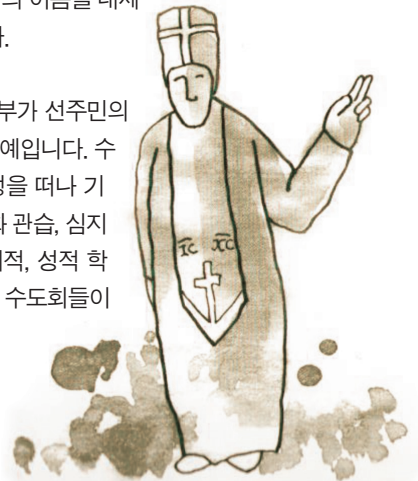
-뮤리엘 레스터
(Muriel Lester)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인종(vile race)”의 몰살을 명령하셨다고 외치며 무슬림 투르크족을 향한 첫 번째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이 행동한다고 믿었으며, 1099년 기독교 군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천 명의 무슬림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많은 유대인과 동방정교회(Orthodox) 그리스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군주들은 새로운 세계를 점령하거나 식민 통치할 때, 십자가와 같이 함께 그려진 깃발을 들고 그들의 정복을 정당화했습니다. 어떤 경우 십자가는 원주민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서방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테러리스트와 혁명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 역사는 피로 가득합니다.

캐나다의 기독교 역사 역시 이를 반영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선주민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개입했던 기숙사학교 정책이 그 예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강제로 자신의 가정을 떠나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이들은 자신의 언어, 문화 관습, 심지어 집에 가는 일까지 금지 당했습니다. 많은 아이가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교회와 수도회들이 운영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평화의 길을 향한 비전과 헌신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닙니다. 수 세기에 걸쳐 많은 그리



4) 기독교와 제국의 동맹은 콘스탄티누주의(Constantinianism)라고 불린다. 존 하워드 요더라는 20세기 메노나이트의 중요한 신학자는 콘스탄티누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언제든지 교회가 정치 지도자들과 보조를 같이하고 국가의 기관이 될 때, 교회는 예수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증언하라는 핵심적 부르심을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어떤 신학자들은 콘스탄티누주의에 대한 비판이 메노나이트들이 콘스탄티누스와 종교개혁 사이의 모든 교회 역사를 어떻게든 중독된 것으로 여기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모든 시기에 대한 더 주의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사랑만이 우리
가 받을 심판에
서 사용될 저울
이다.”

-도로시 데이
(Dorothy Day)

스도인과 그들이 벌인 운동은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저항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2세기 프랑스에서는 피터 왈도(Peter Waldo)라는 지도자의 이름 아래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왈도파(Waldensian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지금 프란체스코회로 알려진 수도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수도회 회원들은 가난한, 소박한, 비폭력의 삶을 살기로 헌신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평화를 덕과 소명으로 삼는 많은 가톨릭 수도회 중 하나입니다.

17세기 영국인 조지 폭스(George Fox)와 친구회(Society of Friends, 퀘이커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내주하는 빛(the indwelling light)”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해 무기를 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의 그리스도인 무리엘 레스터(Muriel Lester)는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도적인 국제 평화 기구가 된 화해의 모임(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20세기에는 흑인 침례교 사역자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백인 가톨릭 활동가인 도로시 데이(Dorothy Day)가 억눌린 미국인들에게 불의와 폭력과 억압에 대해 고난 받는 사랑으로 저항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피로 가득한 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의 평화의 길을 담대히 증언하는 여성과 남성을 일으켜 세워 오셨습니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보기

✓ 전쟁과 폭력 앞에서 비폭력 평화의 길을 찾았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또 누가 있을까요?

✓ 특정한 사회·정치·역사적 상황은 어떻게 신앙 공동체의 평화에 대한 헌신을 형성합니까? 적대와 박해 상황 속에서 평화주의 공동체들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상황에서는 또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4. 아나뱃티스트 운동

아나뱃티스트 운동(Anabaptist movement)은 16세기 초반 스위스와 남부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출현했습니다. 이 운동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급진 세력으로 여겨집니다. 초기에는 매우 다양한 운동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공통된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⁵⁾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에서, 아나뱃티스트는 마르틴 루터, 율리히 츠빙글리, 장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들과 많은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모두 교황보다 성서의 권위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는 것이지 공로나 '면벌부'(indulgences, 교회가 제도를 남용하여 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죄의 용서를 제공함)를 사들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동의했습니다. 비록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에서 각각 다르게 일하신다는 '두 왕국'(two kingdoms)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한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나뱃티스트는 가톨릭과도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회원들이 가장 높은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수도자들도 일부 참여했던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고결한 의로움'(higher righteousness)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나뱃티스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대한 다음의 확신을 주장했습니다.

- 신자들은 성인(成人)으로 그들의 자유롭고 자원하는 신앙고백에 따라 세례를 받고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나뱃티스트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유아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5) 아나뱃티스트의 기원의 다양성은 최근 아놀드 스나이더(Anold Snyder)와 같은 학자의 「아나뱃티스트의 역사와 신학」(Anabaptist History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Kitchner, ON: Pandora Press, 1995)과 같은 책에서 주목받고 있다. 스나이더는 초기 아나뱃티스트 일부는 폭력에 의지했으며, 1525년에 일어났던 농민혁명과 1535년 윈스터 시의 폭력 점거와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메노나이트 역사가들은 이 비극적인 사태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정한 아나뱃티스트가 아니라고 여겼다.

“거듭난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며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화의 자녀들로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확증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
-메노 시몬스
(Menno Simons)

을 의미합니다. 아나뱃티스트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과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자의 세례’는 계속해서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전통의 회중이 갖는 하나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로 인해 삶이 변화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용서, 화해, 상호도움을 실천하며, 사랑의 영 안에서 함께 훈련합니다. 아나뱃티스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 구별되는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 신자들은 매일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이를 제자도(discipleship)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 신자들은 ‘검을 드는 것’(bearing the sword)을 포함한 모든 폭력 사용을 거부합니다. 이는 어떤 형태이든 경찰, 군대와 같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무방어주의(defenselessness) 또는 무저항(nonresistance)이라고도 일컬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용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나뱃티스트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훈계를 거의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 특히 원수 사랑의 계명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나 가능한 삶을 기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을 뜻한다고 여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펠릭스 만츠(Felix Manz)는 초기 스위스 아나뱃티스트 지도자였습니다. 1527년에 처형당하기 직전 그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헌신을 표현한 작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그리스도는 또한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참된 종들 역시 그렇게, 그분께서 앞서가신 길,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⁶⁾

6) 아놀드 스나이더, 같은 책, p. 58

7) 2018년 메노나이트 세계교회협의회(Mennonite World Conference, MWC)의 통계에 기초한 수치. 2012년 캐나다 그리스도 형제단(Brethren in Christ in Canada)은 Be in Christ of Church of Canada로 이름을 바꾸었다. [번역자 주]

많은 아나뱃티스트가 유아세례와 병역에 대한 급진적인 거부로 인해 박해를 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신자들, 남자와 여자들이 체포되었으며 신앙의 철회를 거부하다 고문 받고 죽임 당했습니다. 가톨릭 사제였다가 아나뱃티스트 지도자가 된 메노 시몬스(Menno Simons)는 처형을 피해 탈출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운동을 이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나뱃티스트의 많은 신자들이 메노나이트(Mennonites)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 형제단(Brethren in Christ)으로, 재산의 공동 나눔을 주장했던 남부 독일의 아나뱃티스트 지도자인 야콥 후터(Jacob Hutter)의 이름을 딴 후터라이트(Hutterites)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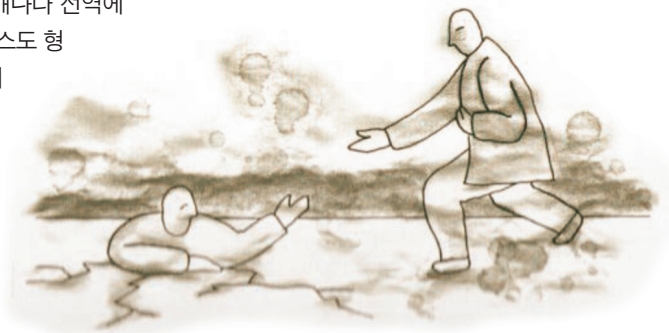
많은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들이 박해로 인해 스위스, 남부 독일, 네덜란드로부터 유럽의 다른 지역들로 흩어졌습니다.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네덜란드에 기원을 둔 아나뱃티스트 일부는 프리시아로 옮겨 갔고 훗날 이들은 남부 러시아로 이동합니다. 스위스-남부 독일에 기원을 둔 아나뱃티스트의 후손 일부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이 미국을 떠나 지금의 온타리오에 해당하는 어퍼 캐나다(Upper Canada)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780년으로,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시기였습니다. 1870년대 이후 여러 번의 주요한 이민 물결을 타고 메노나이트들이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이 모든 이주에서 경제적인 고려도 중요했지만, 병역 면제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바라는 소망이 중요 요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캐나다에서는 병역을 거부하는 메노나이트, 그리스도 형제단, 후터라이트의 저항이 점차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징집이 시작되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회와 그리스도 형제단의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의 대체복무를 위해 오랫동안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전쟁 참여에 반대하는 진정성 있는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로 입증된 사람은 군대에 입대하는 대신 국립공원, 농장,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1/3의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의 청년들은 협상에 의한 대체복무보다 군복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에는 대략 149,400여명의 세례 받은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 신자들이 있습니다.⁷⁾ 이들 회중은 뉴펀들랜드와 프린스에드워드 섬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존재하며, 남부 온타리오, 대평원 지역, 그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구성원이 자신들의 기원을 아나뱃티스트의 역사적인 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두고 있지만, 아나뱃티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회중의 인종적 다양성은 점

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은 대략 24개의 언어



“현대 전쟁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우리 동네와 도시에 서 일어나는 절망스러운 갈등들은 폭력의 무의미함을 보여 주었다. 누구든지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예수가 이 운명을 이기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뿔으면서 파멸하지 않을 것이다. 메노나이트로서 우리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존 램펠
(John Rempel)

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⁸⁾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에 대한 헌신은 대부분의 북미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의 신앙 고백에서 오랫동안 중심 교리로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과 회중이 이 확신을 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라고 여기거나, 단순히 우리 시대의 세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에게 맡겨졌으며 주변 교회와 세상과 나눠야 할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필요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MCC는 구호, 개발, 평화를 위한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의 기관입니다. MCC는 1920년 미국의 메노나이트 구호 기관들이 고통받는 러시아의 메노나이트를 돕는 공동의 구호 사업을 위해 세웠습니다. 캐나다 메노나이트는 거의 초창기부터 MCC를 후원하고 참여하였습니다. 1963년 캐나다 안에서 후원을 조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MCC 캐나다를 설립하였습니다. MCC는 언제나 평화가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평화와 평화 만들기는 세상 속에서 펼쳐는 MCC 사역의 핵심입니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보기

- ✓ 당신이 속한 교회는(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가족에 속했든 아니든) 예수의 평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 ✓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시작되었던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아나뱃티스트의 평화신학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절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 ✓ 당신은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쁨, 혹은 불모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과 장애물 같은 것입니까?

8) 메노나이트 세계교회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6세기의 유럽의 급진적 개혁운동, 특별히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는 전 세계 86개국에 213만 명의 세례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누면, 아프리카 36.43%, 아시아-태평양 20.58%, 유럽 2.98%,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 9.51%, 북아메리카 30.50%다. 대략 전 세계 2/3 정도의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세례 신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혹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 [번역자 주]

5. 이-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신학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해석

신약 성서의 여러 부분은 여전히 이-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의 평화에 대한 핵심적 이해를 구성하는 성경적 근거로 여겨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는, 성서에서 표현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성경 이야기 전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관점들, 더 넓은 교회와의 대화는 다양한 관점을 더해주는 한편 평화의 복음이 21세기의 상황에 적실함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과 이해들이 있을까요?

평화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

평화를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로만 연결 짓거나, 그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창조부터 있었던 창조의 의도의 한 부분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평화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가정을 꾸렸던 동안은 아름다움과 조화와 선함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왕국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불순종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폭력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대를 지나면서 폭력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과 다른 사자(使者)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평화와 정의의 비전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누구도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사 65:25). 미가는 세상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미 4:3).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선포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사 9:6-7).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아모스 5:14-15

선물과 은혜인 평화

앞서 보았듯이, 제자도는 16세기 이래 중요한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의 확신입니다. 하지만 제자도에 대한 강조로 인한 위험 중 하나는 사람의 행동과 작용에 집중하려는 유혹입니다. 달리 말하면, 메노나이트에게는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에 순복하기보다 제자가 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에 치우치기가 꽤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자원에 의지할 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면모인 값비싼 제자도, 즉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⁹⁾

그러나 메노나이트 평화신학의 출발점은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가장 먼저 주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은 인류에게 완전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행위 자체를 통해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골 1:19-20). 달리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롬 5:1). 이 평화의 선물은 우리에게 평화 만들기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고후 5:18).

평화의 선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지지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름을 따르자 하는 자신의 결단, 지혜, 능력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는 평화의 백성으로 구비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정의와 안녕(well-being)으로서의 평화

영어 단어 peace는 자주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본 성서에서 평화(peace)로 해석된 히브리 단어인 ‘shalom’(shalom)은 훨씬 풍성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shalom은 건강과 치유, 화해와 바른 관계, 안전과 안보, 정의와 물질적 풍요를 담고 있습니다. shalom은 충만한 삶을 아우릅니다. shalom은 착취, 압제, 빈부 간의 큰 격차가 없는,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 자신이 shalom과 총체적인 안녕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를 구현하셨습니다.¹⁰⁾ 그는 단지 사람들의 영혼만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 경제

적·사회적 복지를 돌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셨고,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며, 사람들을 젠더, 인종, 계급으로 분리하는 사회적 경계들에 저항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의 공생애를 알리는 메시지는 “주님의 은혜의 해”(눅 4:18-19)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축제로 정의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레 25:8-12).¹¹⁾

살롬으로서 평화를 보는 성경적 이해는 평화를 실천하는 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 왔습니다.

비폭력 속죄신화에 뿌리를 둔 평화

지난 세기,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평화신학은 예수의 죽음이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속죄론에 대한 생생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은 속죄론에서 보상론 혹은 형벌대속론이라고 알려진 기독교 해석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분노하셨고, 그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죽는 것이 필요했으며, 예수는 죄악에 빠진 인류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잔혹한 폭력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보상론 혹은 형벌대속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이론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는 본질 위에 구축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인간의 폭력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용납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로마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를 고문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비폭력으로 대응할 권한을 주심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이러한 방식으로 죄에 대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속죄는 폭력이 아닌 비폭력입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미가 4:3-4

9) J.R. Burkholder, “On the Gospel of Peace and Becoming a Peace Church” (unpublished paper, n.d.)

10)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Perry B. Yoder, *Shalom: The Bible's Word for Salvation, Justice, and Peace*(Narppane, IN: Evangel, 1987).

11)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revised edition(Grand Rapids: Eerdmans, 1994). 「예수의 정치학」(IVP).

“사랑과 진실이 만
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시편 85:10

데니 위버(J. Denny Weaver)는 비폭력 속죄론을 이끄는 지지자로서, 메노나이트가 평화교회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면 비폭력 속죄 신학을 끌어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¹²⁾ 그는 메노나이트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들이 평화를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뿌리내린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너무 많이 ‘아나뱃티스트의 특수성(Anabaptist distinctive)’으로만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나뱃티스트의 특수성’으로서의 평화에 집중하는 것은 길게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비폭력 속죄이론 신학을 포함하여, 오직 비폭력에 대한 헌신을 본질로 두는 신학이 메노나이트가 예수의 평화의 길에 헌신하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통해 표현된 평화

어떤 이들은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평화신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메노나이트가 예수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를 드러내며, 교회가 홀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다고 전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들은 메노나이트 평화신학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초월하시며 불가해한 신비로 여기는 의식, 교회 안에서와 교회 너머에서도 일하는 성령님에 대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더 넓은 교회가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들은 메노나이트 평화신학이 예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길들였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이실 뿐 아니라,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현존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력과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메노나이트는 하나님의 성품의 이런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메노나이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아나뱃티스트의 두 왕국(two-kingdom)에 대한 생각은 교회 너머, 특별히 국가와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삼위일체 신학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 활동하시는 무수히 많은 방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많은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요청은 비폭력의 삶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초청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보다 사실, 그리스도의 인격뿐 아니라 삼위일체의 중심에 놓인 평화와 비폭력을 통해 형성된 신학은 비폭력의 삶을 강화시켜 줍니다.

12) 다음을 보라. J. Denny Weaver, *The Nonviolent Atone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1).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 가운데 있는 평화

메노나이트 신학에는 언제나 교회(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와 세상(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곳)이라는 두 왕국 사이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해는 평화 만들기라는 우리의 사명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먼저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평화의 증언에 참여하라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16세기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나뱃티스트의 주요한 강조점이었습니다. 평화는 신앙 공동체에서 실천되며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을 통해 세상에 평화가 증거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관점은 캐나다에서만 지난 230년 이상 살아 온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의 실재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엄청나게 다양하고 심지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분명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그룹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것과 같은 윤리를 세상에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정부는 “그리스도의 완전함 밖”에 존재하기에 그들은 정부가 전쟁을 일으킬 때도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가 병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스펙트럼의 다른 한 끝에는 일원론 혹은 한 왕국(one kingdom) 사상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둘이 아닌 단 하나의 뜻을 품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가 모든 창조 세계의 주님이며,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완전한 구속을 약속하셨기에 교회 윤리를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패러다임에서 평화교회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사회가 변혁될 수 있도록 일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북미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은 오늘날 자신이 이원론과 일원론의 양극단 사이 어디쯤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분리되었지만 참여하는(apt yet engaged)¹³⁾ 것”이라는 진술이 와 닿을 것입니다. 대화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평화를 만드는 일이 전통, 교단, 혹은 정치적 사상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다. 더 말할 것 없이.”

- 톰 요더 뉴펠드
(Tom Yoder Neufeld)

13) 이 구절은 캐나다 메노나이트 대학의 신학과 윤리학 교수인 해리 휴브너(Harry Huebner)가 만들어낸 것이다. 휴브너는 이 용어를 교회와 국가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이 용어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주제와도 관련된다.

평화신학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관점

1990년대 북미 전역의 메노나이트 여성들은 가정과 교회 상황에서 학대와 폭력의 대상으로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러운 죄악의 침묵을 깨뜨렸을 때, 그들은 평화신학의 어떤 전통적인 측면들에도 도전했습니다.

학대 생존자들과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무저항의 개념에 수반하는 복종, 고난, 용서 사상이 학대 발생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저항 사상은 여성들이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몸과 말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저항 사상은 그들에게 반복되는 학대를 인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저항 사상은 그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존자는 수치와 자기 증오의 깊은 감정을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무저항은 학대를 겪은 여성들에 비추어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평화신학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 가정과 교회 상황과 더 넓은 세상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평화신학이 신뢰성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가장 친밀한 관계에 대해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¹⁴⁾

평화 만들기에 대한 언어 바꾸기

오랫동안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은 무저항(non-resistance)이라는 용어로 자신들이 헌신한 예수의 평화의 길을 기술했습니다. 이 개념은 마태복음 5:39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고 하신 가르침에서 바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서학자는 마태복음 5:39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혹은 “악한 자에 대항하여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본문에 드러난 정신은 예수께서 몸소 보이신 모범과 더욱 일치합니다.¹⁵⁾ 예수는 적극적으로 악에 대



14)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Carol Penner, “A Theology Opposing Violence Against Women,” *MCC Women’s Concerns Report*, No. 164(November-December 2002).

15) Walter Wink, *The Powers that Be: Theology for a New Millennium*(New York: Galilee Doubleday, 1998), pp. 98-101.

항하였지만, 폭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엎으셨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셨으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성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저항(nonresistance)**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nonviolent resistance)**, **사랑의 저항 (loving resistance)**, **악에 맞서는 구속의 저항 (redemptive resistance to evil)**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 근거와 상관없이 악에 대한 무저항과 비폭력 저항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각각의 개념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름 받은 평화의 그 깊이와 너비를 적절히 묘사할 수 없습니다. 비폭력 저항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쉽게 교만과 승리주의, 그리고 과도한 대립주의의 입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저항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의 후퇴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서 읽기는 평화 만들기의 두 가지 측면인 저항과 무저항 모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¹⁶⁾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평화주의’(Christian Pacifism)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초기에 평화주의라는 용어는 사회 개혁을 위한 세속적인 노력과 관련 있었기에 많은 메노나이트가 이 용어에 저항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평화주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긍정적이며 역동적인 에너지로 인해 좋게 여겨집니다. 평화주의(pacifism)라는 용어의 라틴 어근은 pace(peace, 평화)이며 ‘수동성’ 혹은 ‘소극적 저항주의’를 뜻하는 passivism은 pator(I endure, 나는 견딘다)라는 라틴 어근에 기초하고 있기에 그 둘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을 가장 잘 전달하는 언어에 대한 탐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보기

- ✓ 앞서 기술한 아나뱃리스트-메노나이트 평화신학의 전통적 이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 중 당신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 ✓ 평화 만들기, 무저항, 비폭력 저항, 기독교 평화주의와 같은 용어 중, 오늘날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6) Tom Yoder Neufeld, "Resistance and Non-Resistance: The Two Legs of a Biblical Peace Stance," *Conrad Grebel Review* 21:1 (Winter 2003): 56-81.

6. 이어지는 평화의 증언

제2차 세계대전은 캐나다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그룹은 평화에 대한 헌신은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사회에서 예언자적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상황(context) 안에서 사랑과 비폭력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는 여러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메노나이트들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전쟁터의 두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병역거부자 가운데 정신 병원이나 교정시설 같은 곳에서 대체복무를 한 이들은 사회의 더 큰 필요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도시화와 고등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지자 메노나이트들은 그들만의 고립된 공동체에서 더 큰 사회와의 넓은 만남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바깥세상은 이제는 메노나이트들이 마땅히 분리되어 지내야 하는 악하고 위협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사랑, 돌봄, 섬김이 필요한 상처 입고 고통 받는 곳이었다. 그 결과는 ‘역사적 무저항의 재구성’(reconstruction of historic nonresistance)이었다.¹⁷⁾

넓은 사회를 향한 더 큰 참여와 평화를 위한 폭넓은 이해와 비전으로 특징되는 전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CC는 구호, 개발, 평화를 위한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의 교회들의 기관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새로운 평화의 증언에서 가장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MCC의 사역 중 어떤 사례들은 이 성장하고 있는 증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개발된 대체복무 프로그램은 MCC가 자원봉사 프로그램(MCC's voluntary service (VS) program)을 창안하는 추동력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전후 구호와 재건사업에 참여하였지만, 1950년대와 60년대에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교육, 농업, 건강 보건, 사회복지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날 MCC의 봉사자들은 50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 개발, 역량

17) T.D. Regehr, "The Influence of World War II on the Conference of Mennonites in Canada" (unpublished paper, CMC history conference, 1997).

배양과 평화 증진 계획과 같이 폭넓은 영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968년 미국 워싱턴에 MCC 사무실을 개소한 데 이어 1975년 MCC 캐나다도 오타와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MCC가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증언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와 함께하는 옹호 활동을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오타와와 워싱턴의 직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법 조항을 찾고 북미 메노나이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의 파트너들과 사람들을 옹호하며 평화와 정의를 고취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당사자들을 법정 바깥에서 대면하게 하여 치유와 회복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에 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프로젝트로부터,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운동이 자라났으며 훨씬 다양하고 대안적인 조정 방식들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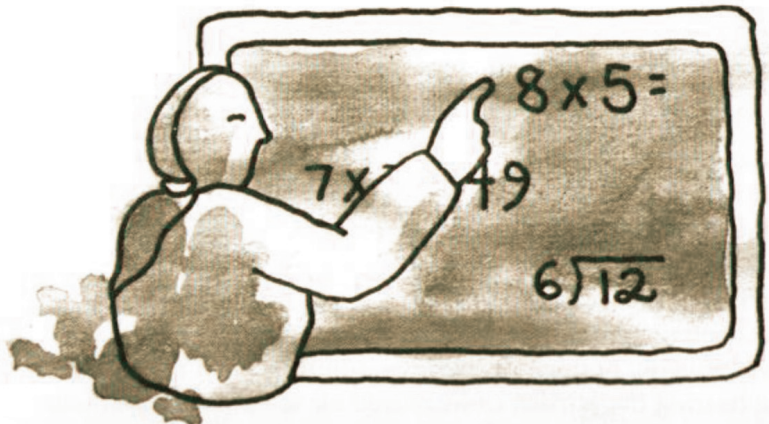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폭력과 적대행위가 불의한 구조(unjust systems)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이 깊어졌습니다.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이 평화를 건설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사회 경제적 정의를 위해 다른 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일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정무역을 증진하고(Ten Thousand Villages와 같은), 국제적 채무의 탕감을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격려하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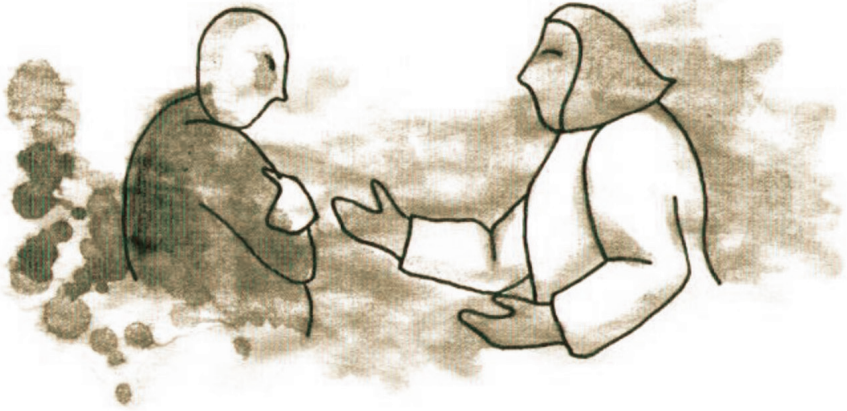
“아마도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전쟁의 시기에만 누군가를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뿐일까?

혹은 계속해서 죽이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 생명을 모두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알아감으로써, 조수처럼 밀려왔다 가는 현재의 사건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평화의 불꽃이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정부에, 우리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것 아니겠는가?”

- 수잔 마크 랜디스
(Susan Mark Landis)





이 세상의 불의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교회, 기관 안의 불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 장애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의 교회와 기관에서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과 성적학대가 우리의 가족과 회중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CC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조할 수 있는 행위와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MCC와 후원교회들의 형평성과 관련된 다른 정의의 이슈가 있습니다. MCC는 백인이자 유럽에 뿌리를 둔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이 형성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MCC 운동은 후원자들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MCC는 어떻게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MCC는 어떻게 선주민들(Aboriginal)을 대상으로 자행된 역사적 불의함을 다루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는 MCC의 이사회, 직원, 그리고 프로그램 가운데 더 큰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창조 세계의 돌봄은 평화와 정의 사역에서 새롭고 중요한 측면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인류만이 아니라, 땅, 물, 공기, 식물과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를 아우릅니다. 인류의 소비, 특별히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는 기후변화, 수질오염과 고갈, 서식지 파괴, 생물 멸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반구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지구 온난화와 변덕스러운 기상 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MCC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보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개인 및 단체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 전쟁, 군사주의, 군사복무는 계속해서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MCC는 계속해서 전쟁에 반대해 왔으며 젊은이들에게 전쟁과 병역의 실상에 대해 교육해 왔습니다. 이것은 병역거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와 국외의 빈곤을 경감시키기 위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막대한 방위비용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을 통한 위협보다는 외교와 대화가 절실합니다. MCC는 무기 수출, 핵무장 해제, 군사비용을 목적으로 한 세금에 대한 대안적 조세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연구하며 다양한 협력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보기

- ✓ MCC의 평화사역 가운데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와 닿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 일까요? MCC가 평화사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측면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 어떤 이들은 201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평화신학과 증언에 새롭고 어려운 도전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도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반응하겠습니까?
-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당신의 평화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약화시켰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7. 우리가 헌신하는 평화 만들기의 본질

모든 MCC 일꾼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 만들기를 예수를 따르는 것의 핵심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평화를 만들라는 요청은 신앙의 삶에서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존재하는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

실용주의는 평화란 우리 목표를 완수하는 실제적인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문주의는 평화란 온 인류가 지닌 선함에 대한 호소라고 말합니다. 이성주의는 평화란 폭력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입장들의 여러 측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입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동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평화 만들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와 평화라는 선물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유지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가 확신하는 평화의 기반을 다지고 지지해 줍니다. 우리가 예배, 성서 연구, 기도, 봉사, 목회적 돌봄, 용서, 겸소한 삶에 동참할 때,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로 형성되어 갑니다. 이러한 공동 실천들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세상에 평화를 전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해 줍니다.



✦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겸손의 영성을 수반합니다. 완벽한 비폭력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범죄하며 폭력과 압제의 구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늘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악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목적과 수단이 같아야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리 생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수상, 장군들은 이 세상의 혼란한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고 빈번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평화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과 수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된 평화는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평화가 그 목적이라면 그 수단 역시 평화여야 합니다. 미국의 퀘이커 A. J. 무스테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 재정 사용, 이웃과의 관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수감자를 면회하는 것,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 정부에 편지를 보내는 것, 난민을 돕는 것,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것, 갈등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군대의 징집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또한 거리에서 드리는 기도회, 시위 참여, 시민불복종행동과 같은 비폭력 직접 행동의 급진적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신앙 공동체와의 기도와 분별에 근거를 둡니다.

✦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와 경험 그리고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요청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사용하며 배우는 기술과 도구들은, 돌봄과 인내로 경청하기,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정치적·역사적 실재를 분석하기, 들려지지 않았던 목소리를 찾아내기, 행동하는 공동체 지지하기, 협력자들을 격려하기, 다른 선택과 대안들을 상상하고 창조하기, 소망을 체현하는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평화는 복음이 선포된 후 오는 시시한 어떤 것이 아니다. 평화는 구원 초창에서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다. 평화의 확산에 대한 요청은 성서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예수, 성서, 그리고 구원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일과 함께 기본적인 일로 여겨야 한다.”

- J. R. 버크홀더
(Burkholder)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사실, 평화다.”

-루스 크랄(Ruth Krall)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아마 사랑이 없는 모든 평화 만들기 활동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공언한 한 예수회 신부는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내놓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념과 헌신 그리고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 만들기를 위한 방법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평화 만들기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과 관련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평화 만들기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못지않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인기 없거나 심지어 반역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으로 인해 괴롭힘과 조롱,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동일시할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악과 불의의 권세에 위협이 되기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복과 복수가 아닌 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반응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한 법률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한 결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보기

- ✓ 그리스도인의 평화 만들기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들을 추가하고 싶습니까?
- ✓ 평화 만들기의 영성을 어떻게 배양할 수 있을까요? 평화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방법-특별히 어려울 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 ✓ 오늘날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겪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습니까?

8. 자주 묻는 질문들

MCC의 일꾼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은 비폭력 평화 만들기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대해 자주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 그들은 자신의 회의와 질문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으며 이런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종종 어려워합니다. 이 지면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 가능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대답을 고민해 보도록 도우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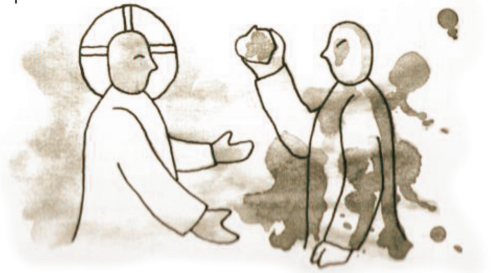
1 만약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약 성서에서 전쟁을 용납하고 심지어 독려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지닌 현대의 범주를 고대 문서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범주보다 훨씬 크시고 더 신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지만 심판과 분노를 쏟으시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을 인간의 폭력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¹⁸⁾

다른 해석은 성서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적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기록한 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적들을 근절시키라고 명령하는 부족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고대의 성서 저자들이 이웃의 부족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상했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장 공통적인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해석은 실제 전쟁 이야기를 포함하여 모든 성서를 예수의 렌즈를 통해 살펴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지어는 적

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임을 가르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마 5:45).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의 율법은 “눈에는 눈”과 같은 제한적인 폭력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



18) 윌라드 스와틀리(Willard Swartley)는 폭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마스(hamas)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인 적이 없으며 오직 인간의 활동에만 쓰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Willard Swartley, *Covenant of Peace: the Missing Peace in New Testament Theology and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7).

만 예수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 5:44). 이러한 예수의 길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 전체 본문을 예수의 렌즈를 통해 읽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파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성서의 본문들을 덜 권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평화를 찾는 일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초청됩니다(고후 5:18). 그리스도의 평화는 각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또한 인류라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맺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화에 대한 성서의 이해는 영적·신체적·사회 경제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이 평화는 사람들에게 개인으로, 가족들로, 공동체들과 사회들로 다가갑니다. 신앙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 모두를 포함하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그 집을 파괴하는 전쟁에 대해, 그의 가난을 야기한 경제 구조에 대해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MCC나 그리스도인 개인이 정부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로마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지원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통치하는 권세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질서 유지 기능, 경찰의 역할과 사법제도 운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자주 해석되듯 이것이 전쟁을 위한 일괄허가(blanket authorization)를 뜻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들은 이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의 이상을 위해 살도록 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며 또한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이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구절만이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은 국가가 전체주의화하고 폭력적이며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우선적인 충성을 기억하고, 정부가(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내팽개치는 것을 고발하며 비폭력의 수단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요청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것보다 저것이 더 큰 정당성을 가지며 계속해서 바뀌는 힘의 단계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군사 침공이 어떤 정권을 전복시켜 그 사회를 무릎 꿇리는 것과 제한적인 군사

력을 사용하여 크고 심각한 위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은 앞의 상황을 규탄하겠지만, 아마도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찾고 역사를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데이비드 슈로더
(David Schroeder)

4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지원 아래 있는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1950년대부터 UN은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거나, 평화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분쟁 상황들 속으로 보냈습니다. 최근까지도 캐나다는 UN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강력한 후원자요 참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내용들을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평화유지군은 다른 무엇보다 전투 기술로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소지하며 그것을 사용하도록 훈련과 승인을 받습니다.

b) 군사적 평화유지 활동은 처음의 수십 년과 달리 더 이상 단순히 평화협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평화를 지원하는 작전들에는 아직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평화’를 강요하는 것이 자주 포함됩니다. 이런 작전들에는 상당히 큰 단계의 무력이 개입됩니다.

c) 어떤 평화 지원 작전들은 내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사실상 폭력을 영구화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은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 활동에 대해 열성적으로 지지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쟁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고통이 생겨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UN의 평화유지 활동이 계속되는 유혈 사태에 대한 최선의 가능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¹⁹⁾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은 거대한 폭력 상황에 대한 비폭력 개입을 시험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상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크리스천 피스메이커 팀즈(Christian Peacemaker Teams)와 같은 그룹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²⁰⁾

19)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Armed Humanitarian Peacemaking: Opportunity, Dilemma or Barrier for MCC Work?” MCC Peace Office Newsletter 27:2 (May-October 1997).

20) 크리스천 피스메이커 팀즈(Christian Peacemaker Teams-CPT)는 1984년 전쟁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같이 비폭력 평화 만들기를 위한 훈련과 자기희생으로 전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름으로 부터 세워졌다. CPT는 온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평화그룹들의 초창기 있을 때 위기 상황과 군사화 된 지역의 폭력을 감소하기 위한 팀을 배치한다. cpt.org 를 보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은...전쟁을 멈추고 세상을 평화하는 것, 세상을 가난과 부로부터 구원하는 것...병든 자를 치유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우며,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뮤리엘 레스터
(Muriel Lester)

5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은 경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은 국내의 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대부분은 경찰이 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을 소지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저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와 동시에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를 위해서 경찰을 부르는 일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원리와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은 사법제도의 대안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회복적 정의의 절차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을 체포해서 회복적 정의의 테이블로 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권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보아야 할까요?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은 경찰 활동에 대해 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찰관들이 갈등 해결, 조정과 같이 폭력을 덜 쓰는 경향의 기술을 훈련하려면 평화주의자들이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메노나이트가 공동체 경찰(community policing)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경찰이 특정 공동체들과 강력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총기 사용과 공권력의 위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메노나이트가 완전한 비폭력 형태를 갖춘 경찰 활동을 상상하고,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최소한, 교회 회중은 직업 경찰이 되는 일에 관심 있는 개인이 있다면 그와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6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국내 혹은 국제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와 같은 국제 사법제도를 통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수단들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항하는 것이 특정 개인에 대한 싸움이 아니며, “권세들과 능력들”에 맞서는 분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만악에 악한 사람들

21) Alexander Solzhenitsyn, *The Gulag Archipelago, 1918-1956*, p. 186. 「수용소 군도」(열린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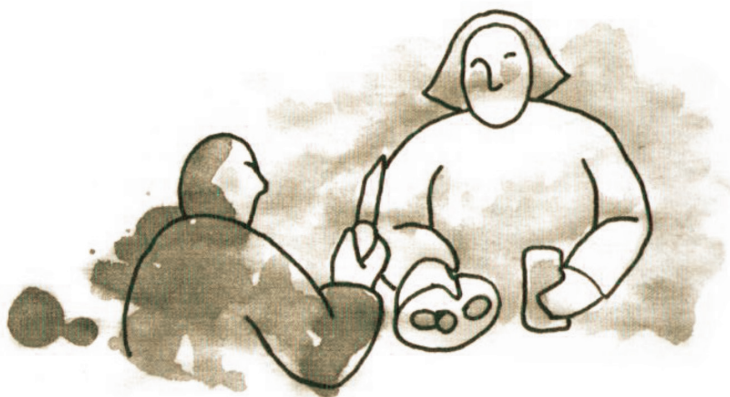
만이 어딘가에서 암암리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그들을 나머지인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파멸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²¹⁾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의 임무는 악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든 -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 그 악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불의와 소외가 아닌 정의와 평화를 위한 조건들을 세우는 일을 돕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7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평화주의자들의 사상에 도전하기 위해 평화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평화주의자가 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서(그럴 리가 거의 없지만) 위협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을 깔끔하게 죽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 가운데 갑자기 이런 경악스러운 시나리오를 마주치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작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영성 가운데 살아가려고 분투할 때, 이와 같은 두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비폭력의 반응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공격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격하려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인간성에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 밖의 행동으로 그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공격하려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그를 저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심지어 우리의 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돌보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 더 큰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더 확대하는 일일 뿐이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십 리를 더 가는 것과 같이 폭력에 기여하지 말고 그것을 무력화하는 급진적인 다른 반응을 상상하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반드시 악의 발판을 무력화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셀라 클라센-위베
(Sheila Klassen-Wiebe)

8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폭력 사용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폭력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훨씬 많은 경우 폭력은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수단이 됩니다. 모든 비폭력적인 선택지가 바닥나고서야 폭력적인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검증된 범위 안에서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 불의함에 대해 말하기, 인권 침해 모니터링, 큰 위험에 처한 이들과 동행하기, 갈등 해결, 비폭력 직접행동에 참여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평화주의자와 평화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계속해서 폭력에 맞서는 비폭력 대안들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점령되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의 저항, 마하트마 간디가 이끌었던 인디아의 독립 운동, 19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1980년대 필리핀에서 일어난 피플파워 혁명, 그리고 베를린 장벽과 냉전을 끝낸 비폭력 운동과 같이 사람들을 조직하여 비폭력으로 억압, 불의, 폭력에 성공적으로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나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평화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효과적인가’ - 우리는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신실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평화를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계속해서 세상 속의 폭력에 대한 평화적 대안을 상상하고, 그러한 상상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보기

✓ 이 장에서 다룬 질문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과 대화한다면 다른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맏음맏

‘평화에 대한 입장(peace position)’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평화는 입장이 아닙니다. 평화는 길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걸어야 할 부름 받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정 가운데 있다면 어떤 특정한 입장에서 그것을 방어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같이 걷자고 다른 누군가를 초대할 것입니다.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당신이 움직이면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그것을 방어한다는 것은 당신이 멈춰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이든, 나에게 여정을 가게 해 주십시오.

- 필 니스(Phil Kniss)

진정 평화 만들기는 목적이인 동시에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관계를 다루든 사회 이슈나 세계적인 갈등을 다루든 말입니다. 우리는 성서, 신학, 역사, 심리학을 통해 배우며 갈등 해결에 관한 경험들도 있지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대답은 종종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찾고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비추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앞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평화 가운데 가십시오.



참고문헌

- Driedger, Leo and Donald B. Kraybill. *Mennonite Peacemaking: From Quietism to Activism*. Scottdale and Waterloo: Herald Press, 1994.
- Friesen, Duane K. and Gerald W. Schlabach, eds. *At Peace and Unafraid: Public Order, Security, and the Wisdom of Cross*. Scottdale and Waterloo: Herald Press, 2005.
- Herr, Bob and Judy Zimmerman Herr. *Transforming Violence: Linking Local and Global Peacemaking*. Scottdale and Waterloo: Herald Press, 1998.
- Piecework: A Women's Peace Theology*. Mennonite Central Committee, 1997.
- Roth, John D. *Choosing Against War: A Christian View*. Intercourse, PA: Good Books, 2002.
- Schirch, Lisa. *The Little Book of Strategic Peacebuilding*. Intercourse, PA: Good Books, 2004. 「전략적 평화 세우기」(KAP).
- Snyder, Arnold. *Anabaptist History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Waterloo: Pandora Press, 1995.
- Swartleys, Willard M. *Covenant of Peace: The Missing Peace in New Testament Theology and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6.
- Weaver, J. Denny. *The Nonviolent Atone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1.
- Wink, Walter. *The Powers that Be: Theology for a New Millennium*. New York: Galilee Doubleday, 1998.
-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1994. 「예수의 정치학」(IVP).
- Yoder, Perry B. *Shalom: The Bible's Word for Salvation, Justice and Peace*. Nappanee, IN: Evangel, 1987.



Mennonite
Central
Committee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 평화 성명서

MCC peace statement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에 대한 헌신”

A Commitment to Christ's Way of Peace (MCC 1993)

서론

1950년 북미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 교회 대표단이 평화에 대한 성경적 헌신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인디애나 주의 위노나 레이크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헌신의 선언” (Declaration of Christian Faith and Commitment)은 하나의 증언으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1950년 이후, 우리의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으며, 우리도 교회로서 또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에 대해 강력한 증언을 하는 동안에도 폭력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괴 수단인 핵폭탄과 미사일 시스템의 발전과 같은 과학기술의 엄청난 성장을 보았습니다. 고도로 정교한 무기들로 거리감이 생겨 많은 군인들로 하여금 적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게 하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파괴력의 대량 구축으로 이어진 동서간 대결은 끝났지만, 대립하는 집단 갈등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많은 곳에서 평화에 대한 소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전쟁과 갈등이 끝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중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동안, 죄의 영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오직 전쟁만이 아니라, 경제적 구조를 통해서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환경에 대한 부주의한 처사로 인해

이 세상의 연약한 생태계가 위협에 처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의 영향에 맞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여러 지점에서 우리 교회들이 했듯이, 교회의 부르심은 평화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서 분명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며, 우리는 다음의 확신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확신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거기 거하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모두에게 용서와 화해를 권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게 되었으며, 화해의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고린도후서 5장.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평화를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 받는 사랑 (God's suffering love)을 전하는 우리 증언의 중심입니다. 이사야 53장;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5-7장; 에베소서 2장.

3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화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입증하라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 자라고,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너머로 사랑, 평화, 정의를 표현하며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증거로 사람들-교회를 창조하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14장; 베드로전서 2-3장; 요한1서.

4 우리는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며 평화는 정의의 추구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이든, 교회 안에서의 관계이든, 민족과 인종 간의 관계이든, 혹은 종교

간이든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증오, 분열, 폭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와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를 추구하라고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2:1-5절; 로마서 12-14장

우리의 헌신

우리는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따르며, 그분의 제자로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분의 대표자들로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삶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어떤 특정한 태도, 의무,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며, 다음의 헌신들을 우리가 취할 길과 방향에 대한 정의로 채택합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 분투합니다. 이 좋은 소식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와 제자도 안에서 경험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사역은 인종, 종교, 지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친구 혹은 적에게도 뻗어 갑니다.

2

우리는 교회가 모든 인종, 계급, 성별, 민족과 심지어 원수였던 사람들까지도 연합시키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인간적으로 표현되는 불안정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립니다. 이 몸에 속한 구성원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며 세계의 신자들을 성찬과 증언 가운데 하나 되게 합니다.

3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원들을 줌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필요와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필요와 많은 곳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에게 연민으로 응답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도덕적 빈곤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선물을 기꺼이 받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나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사랑과 상호존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사랑과 상호존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델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있는 폭력적인 관계를 반대하며 바로잡아갈 것입니다.

5 우리는 국가를 지배하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며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권위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화해, 인간의 필요에 대한 구호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역에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치를 따라 일관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며,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며,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힘을 폭력적으로 생명을 파괴하기보다 건설적으로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부의 요구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우선적인 충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있음을 날카롭게 자각합니다.

6 우리는 전쟁이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도록 분투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은 전쟁을 지지하거나 군 복무를 거부하게 합니다. 전쟁 혹은 전쟁 준비가 우리 자신, 우리의 재정, 우리의 소유를 징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인류와 우리 국가들을 섬길 대안적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조정 사역을 지지합니다. 현대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우리의 충성심과 자원이 미묘한 방식으로 징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제도에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데 공모하는 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것입니다.

7 우리는 예수의 비폭력 영성으로 악과 억압에 저항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우리 '무기들' - 사랑, 진실, 용서 그리고 고난을 주기보다는 기꺼이 고난 받는 - 은 예수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증언은 인간의 마음과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고대합니다. 사랑으로 저항하며 우리는 죄악의 힘에 맞서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오는 해방과 화해를 선포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8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활 방식과 경제 제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국내와 국제간 경제 활동에서 연민과 함께 정의로우며, 또 어떤 경제 제도도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비판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가들에서, 군사비용은 나라의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지탱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폭넓게 퍼져 있는 소비주의의 덫에 저항하고 탐욕과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증언으로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선하게 만드셨으며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미래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

인 핵무기와 환경 파괴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거주자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10

우리는 성서를 연구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서로 조인을 주고받고, 기도의 실천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 세상은 독단적인 인간의 이성과 자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사역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탄원하십니다. 겸손 가운데 우리는, 평화의 길을 걷는 동안, 그리스도가 길을 보여 주시며 안내해 주시며 능력과 위로를 베푸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는 지구상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많은 기회들을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평화를 만드는 사역에 함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신실함, 그리고 이 선언문과 헌신의 항목들을 통해 다시 표현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과 무저항을 확인하는 우리의 전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길을 따르며 겪은 실패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증하는 일과 선포하는 일 모두에서 우리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배움과 순종 가운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함께, 오늘 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합니다.

이 성명서는 1993년 2월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연례 모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의 확산'의 4번 항목의 문구가 1994년 6월에 수정되었습니다. MCC는 북미의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의 교회들이 이 성명서를 연구하고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는 MCC 해외 평화 사무실(Overseas Peace Office)의 자문 위원회인 평화위원회(Peace Committee)가 작성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MCC를 구성하고 있는 북미의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단 컨퍼런스들 간의 평화에 대한 최근의 이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자 **에스더 엠티아센**(Esther Epp-Tiessen)은 University of Manitoba에서 역사, University of Winnipeg에서는 신학으로 두 개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역사 관련 석사 논문은 MCC 캐나다의 기원에 대한 것이었다. 에스더는 필리핀, 온타리오, 그리고 MCC 캐나다에서 일했다. *Altona: The Story of a Prairie Town* (1982), J. J. Thiessen: *A Leader for his Time* (CMU Press, 2011) 의 저자이기도 하다. 2000-2010년까지 MCC 캐나다의 평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했으며, 현재 MCC 캐나다 오타와 사무실에서 공공업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역자 **김성한**은 George Fox Evangelical Seminary에서 교회사를 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에서는 평화학을 공부했으며,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Intercultural Studies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고 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IVF)에서 캠퍼스 간사와 미디어 디렉터로 일했고 밴드 코드셋의 리더이기도 하다. 현재는 MCC Northeast Asia의 평화교육가로 일하고 있다.

평화를 추구하라: MCC의 본질에 대하여

지은이 에스더 엠티아센
옮긴이 김성한
퍼낸곳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 동북아시아(Mennonite Central Committee Northeast Asia)
퍼낸날 2020년 4월 1일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 3층 우)24367
전화번호 033-251-6277
이메일 peaceneasia@mcc.org

ISBN 979-11-969934-0-5 03230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는 아나뱃티스트 교회들의 전 세계적인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반응하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나눕니다.

Mennonite Central Committee (MCC), a worldwide ministry of Anabaptist churches, shares God's love and compassion for all in the name of Christ by responding to basic human needs and working for peace and justice.

비매품/무료



03230